미등록사찰 · 법인 도제도 승려복지 혜택

조계종, 1월 5일 개정안 입법예고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조계종 구족승을 대상으로 한 승려복지제도가 앞으로는 종단 미등록 사찰 · 법인 도제들에 대해서도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부 확대될 전망이다.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는 1월 5일 '승려복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종단 미등록 사찰 및 미등록 법인의 권리인 · 관리인 · 임직원 도제에 대해 승려복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조항을 삭제해 주목된다.

현행 승려복지법은 결계신고를 필한 종단 구족승 모두를 지원대상으로 하지만, 미등록 사찰과 미등록 법인의 관계당사자와 도제는 수혜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됐다. 그러나 당사자가 아닌 도제까지 승려복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과도한 확대일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번 개정을 통해 그 범위를 일부 조정했다.

총무부는 개정취지에서 "종도로서 종단 소속감 고취와 승려복지제도에 대한 참여의식 증대를 위해 미등록 사찰 · 법인의 관리인 및 권리인의 도제라는 이유로 승려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하고자 한다"며 "승려복지 기본부담금을 납부하는 종단 승려의 경우 미등록 사찰과 법인 관계당사자의 도제라도 승려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서는 승려복지회의 승려복지 기금에 대한 지출범위를 확대, 재원 확충을 위한 토대도 마련했다.

현행법상 승려복지회의 지출 항목은 △법에 따른 각종 지원금 △승려복지회 운영을 위한 각종 경비로 규정돼 있다. 개정안은 그동안 승려복지 목적에 따른 단순지출 용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승려복지시설의 설립 및 운영 △승려복지 재원 확충을 위한 토지 및 건물의 매입 등 항목이 추가됐다.

이에 대해 총무부는 "승려복지제도의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조계종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1월 24일까지 서면과 이메일(pjh65@buddhism.or.kr), 팩스(02-733-3603)로 의견을 수렴 한데 이어, 종무회의와 중앙종회 의결을 거쳐 확정 후 공포할 방침이다.

은해사 차기 주지후보에 덕관 · 불산 · 성담 스님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 차기 주지 후보에 덕관 · 불산 · 성담 스님이 입후보했다. 이에 따라 은해사 차기 주지는 1월 15일 예정된 산중총회에서 경선을 통해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1월 3~5일 은해사 차기 주지후보 선출을 위한 후보등록 결과 중앙종회의원 성로 스님과 덕관 스님, 환성사 주지 성범 스님과 운부암 주지 불산 스님이 최종 후보로 등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12일 후보자 자격심사를 거쳐 차기 주지후보 자격심사와 구성원 명부를 확정할 예정이며, 은해사 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는 1월 15일 은해사 육화원에서 개최된다.

덕관 스님은 금정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청하 스님을 계사로 1992년 사미계, 1996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총무원 재무국장과 감사국장 등을 지냈으며 충주 미륵세계사 주지, 강화 보문사 주지를 역임했다. 현재 제17대 중앙종회의원으로 불굴사 주지다.

불산 스님은 법타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4년 금산사에서 월주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81년 해인사에서 고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35안거를 성만했으며 동화사 금당선원, 도성암, 운부암 등에서 선원장을 지냈다. 현재 운부암 주지다.

성담 스님은 혜국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6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89년 범어사에서 구족계를 수지했다. 현재 환성사 주지, 경산경찰서 경승 소임을 맡고 있다. 송지희 기자



신년 설경 동안거 중인 1월 4일 부여 무량사에 눈이 내려 아름다운 설산의 자태가 드러났다. 코로나19로 인해 설경을 찍는 참배객들의 모습은 없지만, 시름을 저멀리 날려보내는 어디선가 맑고 상쾌한 바람이 불어오는 듯하다. 노덕현 기자 · 사진제공=부여군

"불교 본연의 역할로서 변화에 대응할 것"

조계종, 5일 온라인 시무식 진행

조계종이 신축년 새해를 맞아 불교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가운데 능동적으로 변화에 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사진>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1월 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2665(2021)년 중앙종무기관 시무식을 진행했다. '동체대비의 마음으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갑시다' 제하로 이어진 이날 시무식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최소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유튜브로 실시간 공유됐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신년인사를 통해 불교 본연의 역할을 재차 강조했다. 스님은 "올 한해는 불확실성이 넘치는



해"라며 "능동적으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것이 사회적 흐름인 만큼, 불교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다면 그것이 사회를 선도적으로 이끄는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언택트 시대를 맞이해 전통문화를 현대화하고 세계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연구해야 한다"며 "사찰의 중첩된 어려움을 해소할 정책과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는 제36대 총무원 집행부가 임기 3년차를 맞는 해이기도 하다. 이에 원행 스님은 "종단은 미래 세대에 전해줄 불교 유산이 무엇인지 점검하는 한편, 중점 핵심과제의 실질적 성과를 열매 맺는 한 해로 삼고자 한다"며 "한국불교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공심을 가지고 함께 역량을 모아 정진하자"고 당부했다.

종무원들은 원진영 재무부 주임이 대표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부처님처럼 동체대비 마음으로 평화롭고 행복한 지혜와 자비의 길로 함께할 것을 발원하고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송지희 기자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을 비롯한 전국 교구신도회장 및 신도회 임원들이 하트를 그리고 있다.

중앙신도회 '온택트 간담회'로 새해 소통

전국 신도임원 한자리서 만나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구랍 29일 전법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전국 신도단체 임원을 대상으로 온택트 간담회를 열고 새해 각오를 다졌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주윤식)는 구랍 29일 전법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줌(ZOOM)을 활용해 '2020 온택트 신도조직 송년간담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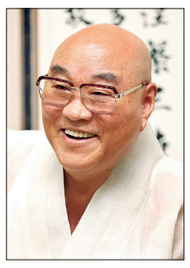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줌(Zoom)을 활용한 비대면으로 진행됐으며, 포교원장 지홍 스님을 비롯해 정연만 중신회 부회장, 최상원 직할교구신도회장 등 지역의 교구신도회장, 문홍식 체육인불자연합회장 등 50여명의 임원진들이 비대면으로 참여했다. 현장에는 주윤식 회장과 팀장만 참석했다.

주윤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사찰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신도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새해에는 백신이 배포되는 등 희망적인 내용이 많은 만큼 더 빨리 힘을 모아 그동안 못했던 활동을 활발히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월서 스님, 동국대일산병원에 1억 원 기탁

구랍 28일 전달… "한 생명이라도 살리는데 도움을"

조계종 제5교구본사 법주사 조실이자 국제구호단체인 '천호월서희망재단' 이사장인 월서 스님<사진>이 구랍 28일 동국대일산병원에 1억 원을 기탁했다.



월서 스님은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주고 있지만 동시에 생명의 소중함도 다시 한 번 깨닫게 해주고 있다"며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 싶다"고 기부 뜻을 설명했다.

월서 스님은 2012년부터 미얀마, 캄보디아, 네팔, 라오스 등 동남아 불교국가에 학교건립, 장학금 지원 등의 교육사업을 지원하면서 한국불교의 위상을 높여왔다.

또, 최근에는 서울 공덕동주민센터와 마포구청에 코로나로 고통받는 불우이웃과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기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경허, 만공, 보월, 금오 선사로 이어지는 법맥을 이어받은 월서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 원로의원 등을 역임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이낙연 대표, "공동체 가르침 필요한 시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월 5일 신년 인사차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했다. <사진>



이낙연 대표는 "불교계가 모범적으로 코로나 방역에 임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신년사에서 공동체의식을 강조하셨는데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이다. 국민들의 마음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 마음의 손을 잡아야 하겠다"고 말했다.

원행 스님은 "사회를 통합하고 상생하는 정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도 큰 일"이라며 "앞으로도 국민화합과 상생을 위한 정치를 펼쳐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지희 기자

靈鷲山雲門寺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교육시스템,
다양한 학인 복지 제도와
명실공히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비구니 교육수행도량!



운문사 승가대학 신·편입생 모집

모집대상 _ 2021년 봄 수계자 및 비구니계 수지한 스님도 가능(편입가능)
모집인원 _ 사미니과 ○○명
제출서류 _ 1. 입학원서(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2. 은사스님 추천서
3. 본인 사미니증(승려증) 사본 및 은사스님 승려증 사본
4. 증명사진(장삼 · 만의 착용) 2매(3×4)
모집기간 _ 2020년 12월 ~ 2021년 3월 18일까지
(사전에 우편 혹은 전화 가능)
전형방법 _ 서류심사(※코로나19로 인하여 서류심사로 대신함)

특전사항
1) 해외교류 대학 · 대학원 입학특전 사항 :
① 일본 하나조노 대학 · 대학원
② 북경 청화대학 인문계열 ③ 태국 국립 마하출라롱콘대학
2) 재학 중 입학금면제 · 병원비지원 · 전학년 교재 및 도서 지원 · 졸업여행비지원
3) 동국대병원과 MOU체결-매년 무료 종합건강검진 실시

운문사 승가대학 회주 법계 명성 · 율주 일진
학장 진광 · 주지 운산

운문사 한문불전대학원·보현율원 신입생 모집

모집대상 _ 비구니계를 수지한 스님, 2021년도 봄 수계예정자 포함 통학도 가능함
모집인원 _ ○○명
제출서류 _ 1. 입학원서(본 율원 · 대학원 소정양식)
2. 수행이력서
3. 승려증 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4. 기본교육기관 졸업(예정)증명서
5. 증명사진 2매(3×4)
모집기간 _ 2020년 12월 ~ 2021년 2월 1일까지
전형방법 _ 서류심사(※코로나19로 인하여 서류심사로 대신함)

특전사항
1) 해외교류 대학 · 대학원 입학특전 사항 : ① 일본 하나조노 대학 · 대학원
② 북경 청화대학 인문계열 ③ 태국 국립 마하출라롱콘대학
2) 학업기간 중 매월 연구비 및 교재지원
3) 각종 장학금 혜택 및 종단 전문 습의사
4) 종단 교육연수비 지원 5) 해외 연수비지원 6) 3급 승가고시 응시자격

운문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명성
율주 일진 · 주지 운산

전화문의 054)372-8800, 054)370-7100 www.unmunsa.or.kr ※제출서류는 운문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